

사설

### 노숙자 지원에 관심을

최근 한국의 경제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 더하여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가 우리의 경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다 보니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냉각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바쁘다.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노숙자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노숙자시설의 경우 불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노숙자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 시설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근검절약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일이다. 그것이 사회적 부도덕은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

려울수록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펴볼 줄 아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부처님께서 아픈 사람과 고독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만큼 작은 마음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노숙자들은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냉대하거나 도와드릴 것이 아니다. 한 시대를 동시대에 살아가는 공업중생으로서 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노숙자시설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소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그곳에서 만개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온정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 대불련 업그레이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의 봄이 화사하다. 전국 각 대학의 불교 학생회에 새내기 불자들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가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간 청년 불교의 기동이라 할 수 있는 대불련의 위축을 가슴 아파 하던 불교계에 봄꽃같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사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내기들의 동아리 가입이 절정을 이루는 3월 중순을 넘기면서 불교학생회에도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을 웃도는 새내기들이 가입신청을 했다. 개학 직후인 3월 10일경 불교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대불련 재학생들이 "새내기 가입이 예상보다 부진해 걱정"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곧바로 상황이 호전된 것이다.

대불련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조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이 효력을 보이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새내기 포교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대불련 홈페이지의 단장과 동아리방의 기능 다양화 등 작전을 준비해 온 대불련 중앙 지도부와 각 지부의 노력이 새내기들의 호응으로 결실을 맺은 셈이다. 무엇보다 보사 취재진이 확인한 새내기 확보의 결정적인 힘이 됐다 분석했다.

이제 대불련은 새 법우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챙겨야 할 때다. 더 많은 새내기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분발하면서 불교를 바르게 알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왕 활성화의 의지를 쫓아온 마당에 대불련은 보다 건실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진일보의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 '서장' '화엄경현담' '화엄경현담 주해집'

## 조계종 교육원 강원 첫 표준교재 발간

### '절요' '선요'도 만들어 곧 보급

조계종 교육원이 <서장>과 <화엄경현담> <화엄경현담 주해집> 등 직접 제작한 전통강원 교재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교육원은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인 전통강원에서조차 검증받지 못한 교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옛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지적에 따라 교재의 검인정과 직접 제작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화엄경현담과목>을 검인정화해 강원도에 보급한 데 이어 직접 제작한 교재를 발간함으로써 강원 교육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립과일반대학의 2학년에 해당 교재인 <서장(書狀)>은 송나라 대혜종교 스님이 간화선 수행의 핵심을 설명한 책으로, 현재 1936년 안진호 스님이 현토(현어)쓰기가 없는 한문 원전에 토씨를 붙이는 일을 맡고 주석을 넣은 교재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교육원이 새로 간행한 <서장>은 원문은 한문으로, 주석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문 뒷부분에 제시함으로써 간경(看經)용 교재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살리면서도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책

후반부에 자세한 내용의 해제를 달아 <서장>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서장>에 등장하는 주요 선사들의 행장을 책 맨 끝에 '선사인명록'으로 정리했다.

교육원은 "<서장>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교재로서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토에 대한 전국 강원도의 재검과 의견을 수용해 완벽한 책으로 내기 위해 시험판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화엄경현담(華嚴經玄談)>은 처음으로 한글 완역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강원 대교과일반대학의 4학년에 해당해서

는 <화엄경> 이해의 필수적인 지침서인 <화엄경현담>을, 현토가 달려 있지 않아 문장을 어디서 잘라 읽어야 하는지도 알기 힘든 한문 목판본으로 배워야 했다. <화엄경현담>의 해설서를 모아 교감한 <화엄경현담 주해집(註解集)> 역시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교감본이다.

각2권 1집으로 나온 <화엄경현담>과 <주해집>은 전통적인 역경 방식에 따라 함께 공부하는 여러 대중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집필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미덕이다. 전·현직 학장인 연관 스님과 도법 스님의 지도 아래 제1기 졸업생을 비롯해 제3기 졸업생 등 10여명 사 화엄학원 대종 스님들이 함께 읽고, 토론해 완성했다.

교육원은 사립과 교재인 <절요>와 <선요>도 직접 제작해 전통강원과 동국대·중앙승가대 도서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한중일 불교 우호대회 대표단 10명 파견키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1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2002년도 결산, 2003년도 예산,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날 종단협의회는 4월 초 제39차 정기총회를 열어 봉축행사, 국제 불교교류, 북녘동포돕기 등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대회 예비회의에 상임이사와 실무자로 구성된 1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과 법공 총지종 총리원장, 학산 법상종 총무원장, 성관 조계종 총무부장, 현광 조계종 사회부장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박병영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문화재 위원 불교전문가 소외

### 국회정각회 곧 활동 재개할듯

### 김기재 연등회장 '여야간 이견 조정'

국회의원 불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의 활동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연등회 회장 김기재 의원은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간의 이견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정각회를 다시 정상화하자는데 한나라당 불자회장 하순봉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각회는 15대 국회까지는 정상적으로 활동했으나, 16대 국회 들어 회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다수당에서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불자회 입장과 여당이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 연등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활동이 중단돼 왔다.

법장스님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여야가 힘을 합쳐 노 대통령에 공약

한 것을 검토해서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못 지킬 것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불교계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또 "방송위원회 선정도 종교별로 고려해야 필요가 있다"며 "불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명우 기자

**"불교 제모습찾기 협조를"**  
법장총무원장 본사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21일 오후 본사를 방문, 김광삼 사장과 회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불교가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다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총무원장)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면 실망이 커질 수도 있다"며 언론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광삼 사장은 "불교 언론의 사명은 포교에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장스님은 또 "북한산과 천성산 문제는 다음주 내로 해결점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성보박물관 및 문화재 보수비, 교구별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 사미(니)의제 특별감찰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이 예비승(사미·사미니)들의 계율 청기기에 나선다.

교육원은 18일 열린 제5차 교무회의에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에 다니고 있는 예비승(사미·사미니)들을 대상으로 한 '사미(니)의제 특별 감찰'을 4월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사미(니)의제 미착용으로 적발된 예비승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제정된 '종단 예비승 위계 확립을 위한 5대 중무방침'에 따라 비구계 수계 자격을 1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형진 기자

### 북한 단청불사 공동추진

민추본·평불협 구성합의

북한 사찰 단청지원불사를 추진해온 민추공공제추진본부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단청불사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추진위 구성은 단청불사에 대한 통일부 승인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양측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편 민추본은 4월 26-28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연등법회를 병행한다.

남동우 기자

### 문화재관리 한차원 개선

### 문화재청 차관급 승격법안 환영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문화재청의 차관급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이 18일 환영 논평을 냈다.

총무원은 논평에서 "차관청 승격은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며 "문화재 관리 정책을 한 차원 개선하고, 문화시대 문화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종단에서도 필요한 내용이 있을 시 충분한 지원과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수덕사 주지 법정스님**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에 법정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20일 법정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사형인 법정스님은 59년과 63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79년 수덕사 재무국장을 거쳐 89년 영봉암 주지를 역임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건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일간지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인쇄인 : 김규석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6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인사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 의례의 결정판! 통일법요집

대한불교조계종 통일법요집 편찬위원회에서 종단의 역량을 기울여 9년간 진행해 온 불교의식 통일화 노력의 결실입니다.

종단 내 의식에 밝은 스님들이 집필·회편하셨고, 강백 크스님들께서 감수하셨습니다.

기존의 법요집에 비해 의식 집전이 편리하도록 활자를 키우고 편집을 새롭게 했습니다.

- 일용의식 | 1. 도량석 2. 중송 3. 대응전 예경 4. 각단예불
- 전문의식 | 1. 상주권공 2. 시왕각배·대례왕공 3. 영산작법
- 상용의식 | 1. 불공 2. 천도제·49제 3. 시식·영반
- 법 회 | 1. 정거법회 2. 일반법회 및 기도 3. 특별법회
- 제반의식 | 1. 점안의식 2. 이운 3. 방생 4. 다비·시다리 5. 육불의식
- 평생·명절의례 | 1. 평생의례 2. 명절의례
- 6. 통일의식 7. 소심경

통일법요집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값30,000원

**불교입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저 / 302쪽 / 값5,000원  
30만 명이 선택한 불자 기초교양 필독서!  
불교 기초교리는 물론 사찰에서의 예절, 수행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 수록

**불교교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저 / 334쪽 / 값7,000원  
불교 입문 과정을 마친 독자를 대상으로 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중급 교재

**불교상담**  
글 명기연 / 300쪽 / 값10,000원  
서구의 상담이론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접근한 심리상담 이야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상담에 활용한 예화가 풍부하게 수록된 불교상담의 개론서!

**침묵이 아니면 진리를**  
글 도영 / 294쪽 / 값8,000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이 40년 동안 포교일선에서 삶에 대해 사유하고 통찰하여 차곡차곡 쌓인 지혜의 참모습을 풀어낸 불교 이야기

• 전화: (02)733 - 6390(대) / 팩스: (02)720 - 6019 • 국민은행 765-01-0017-288 • 농업 053-01-254866 • 예금주 불교중앙출판사 도서출판 **조계종**